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Depression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 Relationships with Daily Hassles, Self-Esteem & Social Skills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심희옥

Kunsan National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Assist. Prof.: Hee-og S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ordering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late-elementary children. Subjects were 436 boys and girls enrolled in the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 of a public school. The contribution of grade, sex, 6 subtypes of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to depression was explored. The instruments were the Daily Hassles Scale, the Self-Esteem Scal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and Child Depression Inventory.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increasing the level of depression. Next was the stress issued from friends in both males and female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ades in the level of stress related to friends. The level of stress issued from parents and self-esteem among grades were marginal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tress from parents, friend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were also evident.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effects of subtype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on depression.

I. 서론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을 우울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떤 것일까? 아동의 우울성향

을 증가시키는데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이를 예언하고 방지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보통 스트레스를 생활사건으로 측정할 경우 두 가지, 즉 빈도는 낮지만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생활사건과 영향과는 상관없이 매일 매일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사건들을 상정한다. 이 분야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일상적 생활사건보다는 주요 생활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주요 생활사건보다는 부적응, 싫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상적 생활사건이 인간의 부적응 행동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연구결과들(Compas, Davis, & Forsythe, 1985; 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 Greene, 1988)이 있다. 분명히 주요 생활사건과 "daily hassles"라고 불리는 일상적 생활사건이 주는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이다(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2; Wagner, Compas, & Howell, 1988). 그리고 어떤 연구(Wagner, 외, 1988)는 주요 생활사건이 일상적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주고 이 부정적인 일상적 생활경험이 우울성향을 불러일으킨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Kanner, 외, 1982)는 주요 생활사건보다 일상적 혼란이나 일상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증후를 더 잘 예언한다고 한다. 즉 주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은 별개의 변인일 수 있다.

개개의 아동이 생활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자원을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스트레스 극복 자원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해서 스트레스를 잘 견뎌내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구분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Compas(1987)는 생활사건과 증후(symptoms) 간의 총체적인 관련(aggregate associations)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개인의 특징과 생활사건의 형태(types)와의 관계 및 증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생활사건들 전체합계와 증후와의 관계보다 생활사건의 하위항목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련 속에서의 증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와 더불어 본인의 과거 연구(심희옥, 1997)를 통해 아동의 자아 존중감이 내적·외적인 부적응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먼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 중 하나로 자아 존중감을 일상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 지각과 함께

내적인 부적응 중 하나인 우울성향을 예측할 변인으로 상정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에 또래나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기술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또래가 아동후기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으로 부각되는 발달 시기이므로 아동의 사회적 특성 중 하나인 사회적 기술을 또한 우울성향을 설명해 줄 연구변인으로 삼았다(Furman, & Buhrmester, 1992; Levitt, Guacci-France, & Levitt, 1993).

본 연구는 소수의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굵직굵직한 주요 생활사건보다는 아동의 여러 일상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가 그들의 우울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규명해 보고자하였다. 매일 매일의 경험 중에서 어떤 종류의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을 더 잘 설명해주는지, 증가시키는지를 아동의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과 더불어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섯 가지 부류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중 어느 변인 순서로 우울성향이 더 잘 설명되는가? 또한 우울성향을 설명해주는 변인의 순서에 성별간의 차이가 있는가?
2. 학년별로 여섯 가지 부류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3. 성별로 여섯 가지 부류의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활 사건과 우울성향

내적인 부적응 중의 하나인 우울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발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4-16세의 3,294명의 일반 아동을 대상

으로 우울성향 정도를 연구(Fleming, Offord, & Boyle, 1989)한 것에 의하면, 6-11세 아동 중 7.5%가 낮은 수준의 우울을 보이고, 0.6%가 높은 수준의 우울을, 2.7%가 중간정도의 우울성향을 보였다. 또한 12-16세 청소년은 청소년 이전기 아동보다 3배 이상의 우울성향을 보였다. Doerfler, Mullins, Griffin, Siegel과 Richards(1984)는 청소년 이전기 아동인 4-6학년들이 12.6%의 우울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Fleming과 그의 동료들(1989)은 우울정도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부모나 선생님이 우울한 아이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눈에 띄지 않고 우울해 하는 아동이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외적인 문제보다 더 일시적이고 희생이 커 보이지 않지만 내적인 부적응 중의 하나인 우울성향은 이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짐일 수 있다(Merrell & Gimpel, 1998).

생활사건과 우울성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Swearingen과 Cohen(1985)의 중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의 생활의 변화가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Siegel과 Brown(1988)은 생활사건의 대소 구분 없이 중·고등학생이 나쁘게 느끼는 상황과 우울한 기분에 관한 연구에서 분명히 두 변인간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주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을 합친 도구를 사용한 신은영과 김경연(1996)의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의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 한다고 하였다. DuBois와 그의 동료들이 2년간 청소년 초기 아동을 종단적으로 연구(DuBois 외, 1992)한 결과를 보면, 주요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가 2년 후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고통(distress)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심희옥(1997)의 4-6학년생의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의 우울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험에서 학년이나 성별간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먼저 Greene(1988)의 4-6학년 대상 연구는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생활사건의 전체 수에서는 학년이

나 성별간의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를 초래한 영역을 나눌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와 학교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신효식과 이경주(1997)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생이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더 우울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희옥(1997)의 4-6학년생의 연구는 학년이 높을수록 우울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생활영역이나 출처를 구분해 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학교, 또래로 스트레스의 출처를 구분한 연구(Siddique & D'Arcy, 1984)에서는 모든 출처에서의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었지만 가족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복지감 [불안, 우울, 사회적 역기능, 무력감(nergia)]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의 출처와 우울성향간의 관계가 다양할 수 있어 스트레스의 출처와 우울성향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자아 존중감과 우울성향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울증의 가장 공통적인 증후인데 우울한 아동은 자신의 수행이나, 소유한 것, 개인적인 자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Kendall, Stark, & Adam, 1990).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서 자기 평가 훈련이 사용되기도 한다(Harrington, 1993). 자아 존중감이란 자아나 자기 개념의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아동의 우울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심희옥, 1997). Rosenberg와 그의 동료(1989)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로서 인간은 자기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고 진작시키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 자아 존중감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울해 할 것으로 가정된다.

3. 사회적 기술과 우울성향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사회적인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보다 더 큰 개념의 한 구성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사회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치가 있으며, 때때로 개인과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Gresham & Cavell, 1986). 예를 들면, 타인에게 미소짓는 것, 뭔가 나눠 갖는 것, 칭찬을 하는 것, 협동해서 어떤 일을 해내는 것 등이다. 친구로부터의 거부를 당하거나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것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는 많이 있으나,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그로 인한 심리적 적응여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울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 훈련이 우울한 아동을 치료하는데 쓰인다(Gresham 외, 1986). 이는 사회적 기술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몇몇 연구에서 우울한 아동이 타인과 원만한 상호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Puig-Antich, Lukens, Davies, Goetz, Brennan-Quattroch과 Todak(1985)은 사춘기 이전의 우울한 아동이 어머니, 형제·자매, 그리고 또래와의 심리사회적인 관계 맺음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Goodyer와 Altham(1991)의 연구 역시 우울이 친구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Cole(1990, 1991)은 3, 4학년생의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우울이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McGee와 그의 동료들(1992)은 청소년 이전기 아동과 청소년기 아동 중 청소년 이전기 아동에게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과 우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Merrell과 Gimpel(1998)은 사회적 기술 결핍이 우울성향을 초래하는 일반적인 구성요소(moderate component)라고 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내적인 부적응 중의 하나인 우울성향을 의의 있게 예언 또는 설명해 주는 변인을 밝혀 아동의 우울성향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하였다. 즉 아동이 매일매일 부딪치는 일상의 생활사건으로부터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 자신에 대한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인 자아 존중감, 그리고 친구나 또래와

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 436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학년, 성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연령의 범위는 8-12세이고, 10세가 30.5%, 11세는 33%, 12세는 31%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2%, 대학교 졸업이 38%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판매, 숙련, 사무직 종사자가 77%이고, 관리 및 전문직이 23%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3%이고 대학교 졸업이 19%이었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응답한 사람 중 판매, 숙련, 사무직 종사자가 78%이고 관리 및 전문직이 11%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성별 분포 () : %

학년	성별			계
	남	여	계	
4	45(10.32)	80(18.35)	125(28.67)	
5	58(13.30)	87(19.95)	145(33.26)	
6	83(19.04)	83(19.04)	166(38.07)	
계	186(42.66)	250(57.34)	436(100)	

2. 측정도구

1) 일상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

일상적 생활사건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의 측정은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만든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2개 문항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 6학년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주변환경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은 각각의 생활사건에 대해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

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1-3점 척도로 하게된다.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한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난다” 이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는 부모는 .63, 가정환경은 .71, 친구는 .78, 학업은 .73, 교사 및 학교는 .66, 주변 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64를 나타내었다.

2)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측정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했는데 아동은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 정도를 “정말 그렇다”에서 “정말 그렇지 않다”의 1-4점 척도에 반응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을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70이었다.

3) 사회적 기술

Inderbitzen과 Foster(1992)가 만든 10대의 사회 기술 목록(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반은 긍정, 반은 부정적인 상황인 40개 문항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1-6 점 척도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상황의 한 문항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준다” 이고, 부정적인 상황의 한 문항은 “나는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면 비웃는다” 이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Alpha는 .63이었다.

4) 우울성향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Kovac(1981)의 아동의 우울 목록(Child Depression Inventory)을 사용하였다.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느낌을 0-2점 척도로 평가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1)나는 가끔 슬프다 2)나는 자주 슬프다 3)나는 항상 슬프다” 이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는 .85를 나타내었다.

3. 자료 분석

PC-SAS를 이용하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했다. 우울성향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주요 변인들간의 학년별, 성별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표 2> 변인들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학년	—										
2. 성별 ^a	.12*	—									
3. 부모 스트레스	.10*	.13**	—								
4. 가정환경 스트레스	.03	.06	.48****	—							
5. 친구 스트레스	-.11*	-.15**	.26****	.35****	—						
6. 학업 스트레스	.05	-.04	.46****	.31****	.33****	—					
7.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02	-.05	.38****	.29****	.40****	.38****	—				
8. 주변환경 스트레스	.04	.05	.34****	.39****	.31****	.32****	.39****	—			
9. 자아 존중감	-.12*	.14**	-.26****	-.25****	-.28****	-.28****	-.10*	-.16****	—		
10. 사회적 기술	-.03	-.20****	-.25****	-.25****	-.25****	-.25****	-.20****	-.31****	.16***	—	
11. 우울성향	.11*	-.16**	.33****	.39****	.53****	.44****	.33****	.31****	-.59****	-.30****	—

*p< .05 **p< .01 ***p< .001 ****p< .0001

^a성별은 여자=0, 남자=1.

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출처에 상관없이 모든 스트레스 변인이 우울성향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은 우울성향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우울을 더 적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성향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우울성향을 예언해 주는 학년, 성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기술 변인이 연구대상 아동 전체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10개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우울성향을 유의하게 설명

해 주는 변인의 순서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아동의 우울성향을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번째는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녀 공히 아동의 심리적인 안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는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의 학년간 차이

연구문제 2의 학년별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기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Duncan의 Multiple-range test에 의하면 친구로 인한 스트레

<표 3> 우울성향에 대한 학년, 성별,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간의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β	부분 R ²	R ²	Adj-R ²
전체	자아 존중감	-.74	-.40	.35	.35****	.55
	친구 스트레스	.63	.27	.14	.49****	
	학업 스트레스	.31	.13	.03	.52****	
	가정환경 스트레스	.35	.11	.01	.53****	
	사회적 기술	-.05	-.11	.01	.54**	
	성별	-1.36	-.10	.01	.55**	
	학년	.79	.09	.01	.56**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20	.08	.001	.56*	
남자	자아 존중감	-.80	-.44	.34	.34****	.51
	친구 스트레스	.65	.26	.12	.46****	
	사회적 기술	-.06	-.13	.03	.49**	
	가정환경 스트레스	.38	.13	.02	.51*	
	학업 스트레스	.24	.11	.01	.52 ⁺	
여자	자아 존중감	-.69	-.37	.33	.33****	.56
	친구 스트레스	.58	.25	.15	.48****	
	학업 스트레스	.38	.16	.05	.53****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34	.13	.02	.55**	
	가정환경 스트레스	.36	.11	.01	.56*	
	학년	.87	.10	.01	.57*	
	사회적 기술	-.04	-.10	.01	.58*	

*p<.10 **p<.05 ***p<.01 ****p<.001 *****p<.0001

<표 4>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년별 변량분석 결과

(N=436)

변 인	학년	M (SD)	F	Duncan
부 모 스트레스	4	12.76 (2.67)	F=2.31 NS	
	5	13.04 (2.48)		
	6	13.41 (2.61)		
가정환경 스트레스	4	8.74 (2.07)	F= .24 NS	
	5	8.86 (2.19)		
	6	8.91 (2.11)		
친 구 스트레스	4	11.02 (2.98)	F=3.43 p<.05	A
	5	10.24 (2.58)		B
	6	10.20 (3.01)		B
학 업 스트레스	4	13.10 (2.90)	F= .83 NS	
	5	13.48 (3.01)		
	6	13.54 (3.04)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4	11.20 (2.67)	F= .90 NS	
	5	10.76 (2.69)		
	6	11.03 (2.87)		
주변환경 스트레스	4	8.40 (1.94)	F= .43 NS	
	5	8.59 (2.50)		
	6	8.64 (2.32)		
자아 존중감	4	28.14 (3.78)	F=2.94 NS	
	5	27.57 (3.89)		
	6	27.09 (3.37)		
사회적 기술	4	156.86 (16.81)	F= .29 NS	
	5	156.79 (16.35)		
	6	155.64 (14.60)		

스의 경우에만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는 학년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이 5, 6학년보다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의 성별간의 차이

연구문제 3의 성별로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사회적 기술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5>와 같다.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의 출처가 부모, 친구일 경우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t(436)=-2.59, p<.01],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436)=3.18, p<.01]. 자아 존중감의 경우, 남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6)=-2.84, p<.01]. 사회적 기술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36)=4.29, p<.0001].

V. 요약 및 논의

아동기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험이나 부적응은 아동이 온전하게 발달하고 기능하는데 장애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즉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이나 부적응을 초래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밝히는 일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돕는데 중요하겠다. 스트레스를 주는 특정한 생활사건과 개인의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표 5〉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성별 t-검증 결과

변인	성별	M	SD	t
부 모 스트레스	남	13.48	2.90	-2.59**
	여	12.82	2.30	
가정환경 스트레스	남	8.99	2.24	-1.19
	여	8.74	2.03	
친 구 스트레스	남	9.95	2.73	3.18**
	여	10.82	2.94	
학 업 스트레스	남	13.26	3.21	.77
	여	13.49	2.82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남	10.82	2.84	1.09
	여	11.11	2.68	
주변환경 스트레스	남	8.69	2.33	-1.10
	여	8.45	2.24	
자아 존중감	남	28.13	3.71	-2.84**
	여	27.12	3.62	
사회적 기술	남	152.68	15.17	4.29****
	여	159.12	15.76	

p<.01 **p<.0001

요청되는바(Compas, 1987),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들 전체합계와 우울성향과의 관계보다 생활사건의 하위항목이 초래하는 스트레스와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그리고 우울성향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즉 생활사건으로부터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더불어 아동의 내적이며 심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특성 중의 하나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와 그들의 우울성향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아동의 정서문제의 유발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남녀 전체와 남녀 각각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는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의 총 설명변량 55% 중 35%, 즉 우울성향 설명변량의 60% 이상이 자아 존중감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후기 아동이 겪는 어느 스트레스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 존중감 수준이 그들을 우울하게 하는 주요인 임은 주목을 요한다. 자아 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면 타인과

의 비교에서 자신을 판단한다고 한다. 자아 존중감 이론은 낮은 자아 존중감이 우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Rosenberg 외, 1989), 본 연구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더 우울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적인 고통(emotional distress)에서 보호되기 쉽다는 것이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그들 자신에 대한 타인이나 자신의 판단이 아동들을 가장 크게 우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자기 존중이 인간 존재의 주요 동기라면 그런 동기가 좌절될 때 우울경험은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우울성향을 의의 있게 예언해 주는 두 번째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아동후기 시기가 아동에게 있어 친구나 또래의 지지 및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즉 아동후기 아동들은 부모나 다른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사이에

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보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증가한다는 Furman과 Buhrmester (1992) 및 Levitt 외(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우울 증가의 세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사회적 기술 부족이 세번째 요인으로 우울성향 변량의 3%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가 세번째로 우울성향 변량의 5%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우리 나라의 교육 문화 속에서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이 있을 것은 쉽게 예견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업, 학교, 교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사회적 기술 부족이 그들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영역의 일상적 생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중 오직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학년이 낮을수록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지 본 연구로는 분명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또래나 친구가 아동후기에 중요한 타인으로 지각되면서 아동은 민감한 또래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지적인 미성숙으로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친구로 인한 불만이나 좌절을 어릴수록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발 영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여학생보다 더 경험하고 여학생은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은 본 연구와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초등학교 4, 6학년생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Greene(1988)은 4, 5, 6학년생이 또래와 학교관련 스트레스영역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런 차이

는 문화나 스트레스를 측정된 문항의 차이일 수 있겠다. 이런 결과들은 우울성향을 초래하는 스트레스 영역이 남녀학생에게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사회적 기술의 경우, Sarason, Sarason, Hacker와 Basham(1985)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처럼 여학생의 사회적 기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기술은 뭔가 나눠 갖거나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거나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는 기술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으로 더 숙련된 행동을 보이고 더 표현적이라는 점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생각하건대, 아동후기 아동이 우울해하는 정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간의 내적이며 심리적인 성향인 자아 존중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생활영역의 스트레스 중 친구와 학업과 관련된 일상적 생활사건이 그들의 우울성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아동의 대인과의 사회적 기술 발달 정도 역시 그들의 정서문제와 관련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적절한 사회환경과 대인 관계 기술이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이다. 다른 사회나 경제환경의 아동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이나 우울성향 정도를 자기보고 식으로 측정하였는데 관찰법이나 면접이 보충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고 또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아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더 신뢰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셋째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몇 가지의 스트레스 출처와 사회적 기술의 내적일치도가 비교적 낮는데, 원래 이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제작 당시 .62-.80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한미현과 유안진, 1995). 내적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척도별로 문항의 동질성을 더욱 고려한 척도의 존재가 아쉽다. 사회적 기술 측정도구의 낮은 신뢰도 계수는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안한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

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정교한 척도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로, 아동후기 아동의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는 변인을 예언하여 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아동에게 우울성향을 가져오게 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아동후기 아동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스트레스의 출처에 맞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다 정교하게 도울 수 있겠다. 둘째, 낮은 자아 존중감이 내적인 부적응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토대로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겠다. 셋째,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우리 나라 아동후기 아동의 연구가 많지 않는데 본 연구는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 기술 부족이 내적인 부적응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사회적 기술을 아동에게 가르치거나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고, 아동의 생활지도에 활용될 수 있겠다.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후기 아동에게서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 부모보다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더 관련이 있는지 이에 관한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동후기 남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영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성차를 보고하고 이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좀더 정교하게 규명해 볼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Greene(1988)은 인지적인 성숙(cognitive maturity)은 스트레스 반응과 역으로 관련 된다고 했는데, 즉 인지적으로 성숙이 덜 될수록 기분변화가 심하거나 자주 우울해 한다는데 인지적인 성숙정도와 스트레스 지각 및 우울성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요청된다.

■ 참고문헌

- 1) 신은영, 김경연 (1996). 아동·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대안가정학회지*, 34(6), 195-205.
- 2) 신호식, 이경주 (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대안가정학회지*, 35(5), 131-140.
- 3)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4) 한미현, 유안진 (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안가정학회지*, 33(4), 49-63.
- 5)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6) Cole, D. A. (1990). Relation of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e to depressive symptoms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422-429.
- 7) Cole, D. A. (1991). Preliminary support for a competency-based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181-190.
- 8) Compas, B. E., Davis, G. E., & Forsythe, C. J. (1985). Characteristics of life events during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6), 677-691.
- 9) Compas, B. E. (1987). Stress and life event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275-302.
- 10)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3), 542-557.
- 11) Doerfler, L. A., Mullins, L. L., Griffin, N. J., Siegel, L. J., & Richards, C. S. (1984). Problem-solving deficits in depressed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5), 489-500.

- 12) Fleming J. E., Offord, D. R., & Boyle, M. H. (1989). Prevalence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n the commun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647-654.
- 13)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14) Goodyer, I. M., & Altham, P. M. E. (1991). Lifetime exit events and recent social and family adversities in anxious and depressed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I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 219-228.
- 15) Greene A. L. (1988).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stres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8*(4), 391-403.
- 16) Gresham, F. M., & Cavell, T. A. (1986). Assessing adolescent social skills. In R. G. Harrington(ed.), *Testing adolescents: A reference guide for comprehensive psychological assessments* (pp. 93-123). Kansas: Test corporation of America.
- 17) Harrington, R. (1993). *Depressive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18) Inderbitzen, H. M., & Foster, S. L.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19)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1-39.
- 20) Kendall, P. C., Stark, K. D., & Adam, T. (1990). Cognitive deficit or cognitive distortion in childhoo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55-270.
- 21) Kovacs, M.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22) Levitt, M. J., Guacci-France, N., Levitt, J. L.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tructure and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11-818.
- 23) McGee, R., Feehan, M., Williams, S., & Anderson, J. (1992). DSM-III disorders from age 11 to age 15 year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1*(1), 50-59.
- 24)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ew Jersey: LEA.
- 25) Puig-Antich, J., Lukens, E., Davies, M., Goetz, D., Brennan-Quattrock, J., & Todak, G. (1985). Psychosocial functioning in prepubertal major depressive disorders. I: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the depressive episod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00-507.
- 26)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27)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28) Sarason, B. R., Sarason, I. G., Hacker, T. A., & Basham, R. B. (1985). Concomitants of social support: Social skill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gen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2), 469-480.
- 29) Siddique, C. M., & D'Arcy, C. (1984). Adolescenc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6), 459-473.
- 30) Siegel J. M., Brown, J. D. (1988).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715-721.
- 31) Stark, K. D., Rouse, L. W., & Livingston, R.

- (1991). Treatment of depression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for the individual and family. In P. C. Kendall(ed.),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pp.165-206).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32) Swearingen, E. M., & Cohen, L. H. (1985).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45-1054.
- 33) Wagner, B. M., Compas, B. E. & Howell, D. C. (1988). Daily and major life events: A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of psychosoci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2), 189-205.